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선교 몽골 다르항을 다녀오다.

8개 진료과 9일간 3,157명 진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보건 의료환경이 열악한 몽골 다르항에서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고, 7월 3일엔 평가회를 가졌다.



김영훈 루카

■ 해외 의료선교 단장,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008년 '제3기 사랑의 날개' 해외의료선교단은 울란바타르에서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4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북부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의 제3의 도시 다르항에 도착했다. 다르항은 인구 88,000명의 깨끗한 신시가지로 몽골에서 유일한 열차 환승지역이다.



해외의료선교단은 강남성모병원 최정진 원목실장 신부님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의료협회 회원 소속 병원의 의사 10명, 간호사 9명, 약사 5명, 보청기기사 1명, 조리사 2명, 행정팀 3명 등 총 3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원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선교 기간을 개인휴가로 대체하였고 자비부담을 높였다.

현지 주민에 대한 밀착된 진료를 위하여 가정방문진료와 살레시오회관진료, 전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지 제1병원의 수술실을 이용한 성형외과 전문수술도 하였으며, 질병 예방사업에도 힘을 써 영양, 감염, 치아건강, 고혈압, 이비인후과질환, 결핵, 여성의 기본위생과 손씻기, 산부인과의 전반적인 질병과 질염 예방법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살레시오회관진료는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8개 진료 과목으로 5일 동안 총 3,157명에게 3,563건을 진료하였다.

그 외에도 대체요법 92건과 청력검사 288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24개의 보청기를 무료로 시술해주었고, 심장초음파 113건, 심전도 283건, 산부인과 암검진 118건을 시행하였으며 간기능검사와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기도 하였다.

우리 단원 모두는 겸손한 자세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신앙적 지혜와 체험적 산교육을 느끼고 배웠다. 이렇게 알찬 해외의료선교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영식 회장 신

부님을 비롯한 협회와 회원 병원이 물심양면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저희 단원들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신 회장 신부님 이하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단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몽골 다르항 시의 정부 보건 관계자는 한국기독교의료협회 해외의료선교단에게 감사의 뜻으로 훈장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의료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들의 동참,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의료선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최정진 베네딕도 신부

■ 강남성모병원 원목실장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초원의 나라에 대한 작은 설렘 속에, 울란바타르 상공에서의 심한 기체의 흔들림은 드디어 몽골 땅이 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넓은 땅과 적은 인구, 미약한 사회 기반시설과 경제력, 키릴 문자와 언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외형, 그러나 가장 깊이 공감되었던 것은 서로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7년 넘게 이곳의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이 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도회의 신부님과 고국을 떠나, 척박한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과거 극동의 한쪽 끝에 굳게 닫혀 있었던 우리나라를 찾았던 선교사들을 생각해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오고, 떠나지 못 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날 몽골은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의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체계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식의 가치기준과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주려고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

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란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날개’ 의료봉사단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의사



최환석 요섭

■ 해외의료선교부단장,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주님께서 우리 일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를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고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으나 우리 단원에게 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했습니다.



이채혁 스테파노

■ 해외의료선교부단장, 인제대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좋은 의료 봉사 시간이었습니다. X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지난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약을 충분히 또는 희귀한 병에 대한 약도 조금씩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만 등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아 아가다

■ 강남성모병원 치과 교정과

한국의 선진진료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care를 진단만하고 보내려니 안타까웠습니다. Unit Chair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래옥 베네딕다

■ 통일산부인과 원장

모두가 진실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받기 위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 진료 받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산부인과 암 검진을 받으셨던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 단회성이 아닌 연속적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언제 오냐고, 다시 오라고 말하던 다르함 주민들의 아우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송봉규 베드로

■ 천안교도소 의무관, 방문진료



진료가 세분화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의사로서 낙후된 지역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15일 내지 한 달분의 약만 드렸습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고혈압 환자에게는 장기 투약을 해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용석

■ 성모병원 심장내과 교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판막질환 환자를 진



윤병민 베네딕도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성형외과, 수술

몽골 공기가 맑고 구름이 멋
집니다. 진료 통역이 많이 필요
합니다.

료하였으며 의외로 심한 심장 질
환(심근경색), 중증고혈압환자가
많아서 앞으로 추후관리나 수술
및 중대 시술 등의 치료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이근석

■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성실히
진료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감명 깊
었습니다.

다빈도 진단이나 처방이 반복
되는 부분은 약속처방을 만들어서 약국과 미리 준비를 하
면 진행이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최대용 루카

■ 금천성모병원 흉부외과



많은 은총을 받고 좋은 사람
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몽골의 제1병원은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인 것에 비해 열악한
수술방 사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
으나 몽골 의사, 간호사들이 구

경하러 와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
빈 공간에 게르를 설치하여 살고 있는 한 가정의 티 없이
맑은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역시 받아들
이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

박미숙 비비안나

■ 강남성모병원 8B Unit,
간호팀 리더

미사 시간이 기억에 남을 추
억이 되었으며, 오늘도 주님 보
시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순 루실라

■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정간호센터, 접수

몽골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
어서 좋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이고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행복
했습니다.



김종은 아네스

■ 성모자애병원 51병동, 산부인과 간호사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
만 서로 격려하며 얼굴 찡그리는
사람하나 없이 봉사하시는 모습
을 보며 이들이 바로 천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 파트에
서 각자의 역할에 너무나 충실히
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봉사를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데레사 말가리다 수녀

■ 대구천주성삼병원 간호부, 접수



움직이는 작은 병원인 사랑의 날개 일원으로 일했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잊지 못할 기도를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 행복하고 부자 된 마음입니다. 사랑의 날개가 날아가는 4기, 5기

... 언제든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 협력하겠습니다.

배선경 요한 수녀

■ 인곡자애병원 간호과, 검사실

오래 기다리 건, 아프게 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느긋하신 환자분들을 보며 힘이 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미미하지만 하느님께서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시는 듯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감사와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 고통 받는 이들이 한사람도 없는 그날까지 사랑의 날개는 그 아름다운 몸짓을 멈추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재혁

■ 성모병원 응급실

외래계(OR): ps, cs를 위한 제1병원 수술 순환 간호사

힘들고 거친 하루하루였지만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며 바라는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왔습니



다. 모든 의료진, 행정팀, 영양팀에 감사드립니다.

‘몽골의료봉사’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밤에 부는 몽골의 시원한 그 바람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지금은 덥고 지치지만... 마음만은 몽골의 바람처럼... 매년 몽골의료봉사에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점희 가타리나

■ 광주 전남대병원 중앙주사실, 심전도실

제 각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서 피곤하지 않았나봅니다. 거의 맹훈련에 가까운 일과 속에서도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우려했던 씻는 문제와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고 평가회 후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한마음이 되어가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냈습니다. 의료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뜻 깊은 일이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현정 효주 아네스

■ 외과계 및 수술실 스트립 간호사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 시설은 열악하지 않았으나 의료기술에 있어서 한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2살, 거의 전신에 화상을 입은 아기를 그들의 방식대로 치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들, 또 의료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최첨단 의료기술이 없어도 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최다희 세레나

■ 부산성모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심장내과



작은 것 하나에 행복을 느끼며 가는 몽골 주민의 얼굴을 보면서,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데... 행복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 다행입니다. 마니또 '톡스'에게 미안합니다. 더 잘 챙겨주고, 집에도 놀러가 보고 했음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약사



백정미 로사리아

■ 의정부성모병원 약제과, 약제팀 리더

저희 사랑의 날개 의료 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 주어진 약들이 보약같이 작용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김소영

■ 성모병원 약제과

하루하루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출발했고,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도, 감사하게도 그 피곤이 다음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의료봉사라서 그런지 감사함과 마음의 평안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시작 전부터 새벽에 나와서 약 정리하고 예제제 찍

고 가장 나중에 진료 다 끝난 후 마무리되는 게 약국의 습성이지만 이렇게 5일 연달아 강도 높게 일을 했다는 것,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것. 하느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정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약제과



처음에 올 때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와서 봉사하고 생활하다 보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미경 요셉피나

■ 가톨릭약사협회

성공적인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품 준비가 미비한 것이 안타까웠고, 약을 나누어 주는 곳에 그들을 만 들어서 환자들이 땡벌에서 기다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최복희 율리아나

■ 정동병원 약제과

가톨릭약사회를 통해서 사랑의 날개를 달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단단한 각오를 하고 한국을 떠나니 약간의 흥분이 되었습니다. 살레시오회 신부님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되어 한



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매일 약 짓느라 분주한 나날들이었고, 어느 해 질 무렵에 가난한 게르를 방문하여 만난, 때 구정물이 흐르는 순박한 모습을 한 다섯 아이와 여섯째 아이를 가진 임신부, 비를 맞으며 마니포와 함께 한 소풍 길에서 본 광활한 몽골 대평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몽골 징기스칸 공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을 빕니다.

조리팀



김영옥 세실리아

■ 강남성모병원 영양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즐거웠습니다. 인원수에 비해 준비시간이 부족했으나 잘 드셔서 좋았습니다.



백정란 아나다시아

■ 성빈센트병원 영양팀

몽골의 도우미 자매님들께서 너무 순수하고 선해서 서로 말은 안 통했지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청기



성병하 로마노

■ 성병하보청기센터 원장,
청력검사 및 보청기 시술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배터리 문제 등)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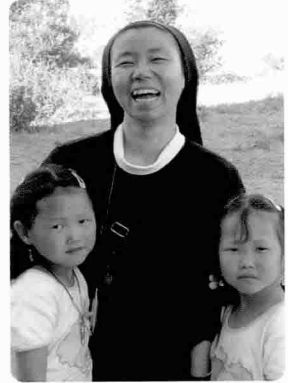
행정팀



박영혜 마리빅토리아 수녀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피정과 발대식으로 무장을 하고 몽골 현지에서도 매일 새벽미사로 하루를 열었으며 말씀의 전례로 감사함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날그날의 평가회로 내일을 업그레이드시키며 서로의 격려로 힘을 받으며 고된 일정을 잘 소화해주신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행정 및 사진

물이 귀한 곳이라 비를 몰고 온 우리를 축복의 사절단이라 더욱 반가와 하였습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흘렸던 땀방울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기를 바라보면서 그 기억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자 한 컷 한 컷 담아 여기에 펼쳐놓습니다. 이동하는 차창 너머로 넓게 펼쳐지는 몽골의 초원이 평화롭게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할 것 같습니다.



박해란

■ 접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성 질환의 환자 분께서 3일 분의 약을 받아 가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의료선교
몽골

미사·주민교육



단체사진·현장평가회



해외의료선교평가회



	6. 16	6. 17	6. 18	6. 19	6. 20	6. 21	과별 총계
내과	43	85	58	128	299		613
가정의학과	65	106	81	112	162		526
대체요법(전기치료, IMS, 카이로프랙틱)	23	26	19	14	10		92
외과 (다르항 제병원 수술 및 드레싱)	입원환자진료	3	병동rounding, 외래입원환자 진료상담	6	5	1	15
신경외과	43	66	81	76	74		340
산부인과	31	66	61	65	94		317
소아과	39	108	90	171	157		565
이비인후과	34	43	85	109	88		359
청력검사	27	35	68	87	71		288
보청기	3	10	6	4	1/수리2건		26
치과	18	32	43	200	109		402
방문 진료	-	7	7	6			20
일자별 총계	326	587	599	978	1,072	1	3,563(건)

진료사진

